

전남도, 화학산업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유치 총력

전라남도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중등 상황 등 유례없는 복합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 화학산업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화학산업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유치에 도정 역량을 총결집하고 있다.

전남도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계원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여수시와 공동으로 '전남 화학산업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산업통상부의 제3기 소부장 특화단지 신규 지정 공모를 앞두고 전남 여수 산업 일원의 지정 필요성을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알리고 국가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는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산업계 전문가, 도민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전남의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결집했다.

개회식에선 전남 화학산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특화단지 유치 의지를 담은 '지정 당위성 확산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참석자들은 전남 여수가 대한민국 화학산업의 심장이자 공급망 안보의 최적지임을 천명하며, 반드시 지정을 이끌어내겠다는 강력한 결의를 다지는 기념촬영으로 포럼의 문을 열었다.

이어 발표 세션에서는 국내 화학산업이 직면한 엄중한 현실과 이를 타개할 구체적 해법이 제시돼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전문가는 '국내 화학산업 위기 현황과 극복 방안'을 주제로 글로벌 공급과잉과 탄소중립

국회포럼... 학계·연구기관·산업계 전문가들과 전략 모색



규제라는 이중고 속에서 소부장 자립화가 국가적 생존 전략임을 강조했다.

'여수 석유화학산업 소부장 특화단지 필요성'에 대한 두 번째 발표에서는 여수 국가산단의 독보적인 원료 공급 인프라와 현재 조성 중인 적량지구, 울촌 융복합 물류단지의 혁신적 확장성을 결합한 차별화된 전략이 공개됐다. 기존 산단과 신규 지구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생산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광양항을 통해 글로벌시장으로 즉시 뻗어나갈 '완결형 소부장 생태계'의 적지임이 입증되는 자리가 됐다.

포럼의 대미를 장식한 토론회에서는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전남 화학산업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실질적 전략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에서는 여수 산단의 숙련된 공정 노하우와 신규 단지의 최신 인프라가 시너지를 낼 때, 대한민국 화학산업의 고부가 전환이 비로소 완성될 것이라는 점에 입을 모으며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는 "글로벌 저가 공세와 중등상황으로 비망 끝에 서 있는 화학산업은, 산업의 기초체력인 소부

장을 키워야 변화의 파고를 버틸 수 있다"며 "정부(산업통상부)가 찾는 소부장 자립과 공급망 안정화를 실현할 곳은 바로 검증된 생태계와 역동적인 확장성을 모두 갖춘 전남 여수"라고 강조했다.

산업통상부는 올해 상반기 중 제3기 소부장 특화단지 공모 절차를 진행해 오는 6월 최종 지정 대상을 결정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번 국회 포럼을 기점으로 지정 당위성을 대내외에 확산시키는 등 공모 선정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염선호 기자

광양경자청, 글로벌 기업 대상 투자유치 전개

암참 이사진 취임식 참가 전남도와 공동부스 운영 및 밀착 네트워킹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구종근, 이하 광양경자청)은 전라남도, 한국스피리츠, 지이 에어로 스페이스, 램리서치 등 첨단 소재부품 장비 기업은 물론 블루에너지, 퓨어셀 등과 같은 친환경 에너지 선도 기업들과 투자 상담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전남의 강점인 동북아 에너지·해양허브, 반도체, 인공지능 등 미래산업과 광양만권의 이차전지 소재클러스터, 스마트 혁신제조 등 첨단산업 인프라를 알리고 투자 유치 기반을 확대하는 자리로 가졌다.

구종근 청장은 "이번 암참 행사는 전남도와 광양경자청이 원팀으로 참여해 미국계 핵심 기업에 전남도와 광양만권의 사업경쟁력을 직접 알린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오늘 구축된 미국기업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에너지, 첨단 제조의 실질적인 외자 유치를 이끌어 내 전남도와 광양만권이 대한민국 신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신선호 기자

전라남도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필요한 5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에 건의했다.

전남도는 20일 강위원 경제부지사가 국회를 찾아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행정통합에 소요되는 500억 원 규모 예산의 추경 반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위원 부지사는 이날 민주당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에 정책위의장, 청와대 비서관실 등과 면담 및 통화를

전남도, 전남·광주 행정통합 500억 추경 반영 건의

국회·민주당에 광역통합 1호 출범 필수예산 확보 요청
정보시스템 통합·공공시설 정비 등 5개 핵심사업 설명

통해 행정통합 추진·국고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전남도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단순 지역 통합을 넘어 이재명 정부의 '5국 3특' 지방수도성장 정책의 상징적 모델로,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효석 전남도 행정통합 실무준비단장은 국회를 방문해 지역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국고 지원을 건의했다.

전남도가 제시한 통합특별시 출범에 필요한 사업은 ▲정보시스템 통합 167억 원

▲안내표지판 정비 28억 원 ▲공인·공부 일원화 53억 원 ▲공공시설물 정비 242억 원 ▲정사 재매치 10억 원 등이다.

강위원 부지사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안정적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광주시와 정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당정 협의와 국회심의의 동향을 지속해서 파악하며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신영길 기자

전남도, 행정통합 대비 지적행정 혁신 머리 맞대

지능형 공간정보 활용 토지정보 고도화·재조사 속도 제고 등 논의

전라남도는 20일까지 이틀간 여수 호텔JCS에서 '2026 지적·재조사 혁신 컨퍼런스'를 열고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대비한 지능형 공간정보(GeoAI) 기반 토지정보 고도화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속도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컨퍼런스에선 중앙부처, 대학교수, 공무원,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능형 공간정보를 활용한 토지정보 서비스 고도화와 지적행정 역량 강화를 주제로 우수 연구과제와 사례 발표가 진행됐으며, 홍보영상 콘테스트도 함께 열렸다.

전문가 특강에서는 전남·광주 통합에 따른 미래 지적제도 청사진과 행정환경

변화 대응 전략이 제시됐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추진되는 지적재조사사업 제4차 종합계획(2026-2030)의 추진 방향도 논의됐다.

이날 발표에서는 시군 실무자의 연구과제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미래 측정기술 성과가 공유됐다. 총 15편의 과제가 발표됐으며, 우수과제 3편에는 상장이 수여됐다.

전남도는 컨퍼런스를 계기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토지 경계 분쟁에 따른 도민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지적재조사가 완료되면 토지 경계가 명확해져 재산권 행사도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종팔 기자

전라남도는 인권침해와 실직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수시와 영암군에 '외국인 노동자 쉼터' 운영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 쉼터는 인권침해, 실직, 사업장 변경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남도가 자체 재원을 투입해 시군 공모 방식으로 추진한다.

전남도, 여수시·영암군에 '외국인 노동자 쉼터' 도입

최대 90일 숙식·법률·의료·재취업까지 맞춤형 지원

그동안 전남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위기 상황에 처하면 민간단체 지원에 의존해 왔으나, 앞으로는 전남도와 시군, 민간단체가 협력해 직접 보호·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공모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거주하는 동부권과 서부권 거점인 여수시와 영암군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시군은 공모를 통해 쉼터 운영 민간기관을 선정 한 뒤 시설 환경 개선을 거쳐 오는 5월

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쉼터는 수용 인원 10명 이상 규모로 운영되며, 전담관리 인력 1명 이상이 상주하고 보건·위생 및 안전, 재해 예방 기준을 갖춘 시설에서 운영된다. 입소한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최대 90일 동안 숙식과 생활정보 제공 외에 법률·노동 상담, 한국어 교육, 의료 서비스 등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임재일 기자



자연속의 가족미를 곡성에서